

폴을 인도에 보내놓으면, 장사를 해서 노예 한 명 사올 정도의 돈은 벌겠죠. 그리고 나서 이 섬으로 다시 돌아오면, 그때 비르지니와 결혼을 시킵시다. 나도 내 소중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요. 우리 이웃집이랑 이 얘기를 나눠봐요.”

말이 나온 김에 두 부인은 날 찾아와 이 문제를 상의했고, 나는 그 의견에 동의했네.

“인도를 둘러싼 바다는 아름답죠.”

내가 두 부인에게 말했다.

“여기서 인도까지 항해하기 좋은 계절을 잘 타면, 길어봐야 6주 정도 걸리는 여정이고, 돌아오는 데도 그 정도면 됩니다. 폴을 아주 좋아하는 이웃 주민들을 제가 몇 명 알고 있으니까요, 우리 동네에서 폴이 가져가서 팔 만한 것들을 꾸려 보겠습니다. 가령 껍질을 벗기는 데 필요한 방아가 없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쓸 일이 없는 생면을 주면 어떨까 싶어요. 아니면 흑단나무도 좋죠. 여기서는 너무 흔해서 불을 지피는 데나 쓰이니. 또 우리 숲에서라면 그냥 버려지는 송진 같은 것도 있죠.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인도에서는 꽤 잘 팔리는데, 여기서는 크게 쓸모가 없답니다.”

라 부르도네 씨에게 이 여정에 대한 탑승 허가를 구하는 일을 내가 도맡아 하기로 한 뒤,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폴에게 이 일을 알리고 싶었다네. 하지만 그 젊은이가 제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통찰을 가지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